백화점·마트 주차하기 무섭다

광주 롯데서 승용차 벽 뚫고 추락 20대 숨져

지난해엔 순천 홈플러스서도 추락 사고

2008년 법개정 이전 시설 안전대책 시급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오전 10시43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백모(26)씨가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하 6층으로 추락해 백씨가 숨졌다.

주차용역 직원인 백씨는 점장의 차를 세차하러 지하 3층 스팀세차장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일 오후 3시께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도 테라칸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차량은 건물 밖에 세워진 에어컨 실외기 고정용 구조물에 부딪힌 뒤, 차체가 서서히 기울며 떨어진 탓에 탑승자는 목숨을 건졌다.

사고가 난 주차장의 벽은 경량 콘크리트 블럭 등으로 만들어져 차량 충돌에 가볍게 뚫렸다.

백씨가 몬 오피러스 승용차는 주차칸에 있는 방지턱을 넘어 두께 15㎝ 가량의 블록 벽을 뚫고 나가 기계실이 있는 지하 6층까지 뒤집힌 채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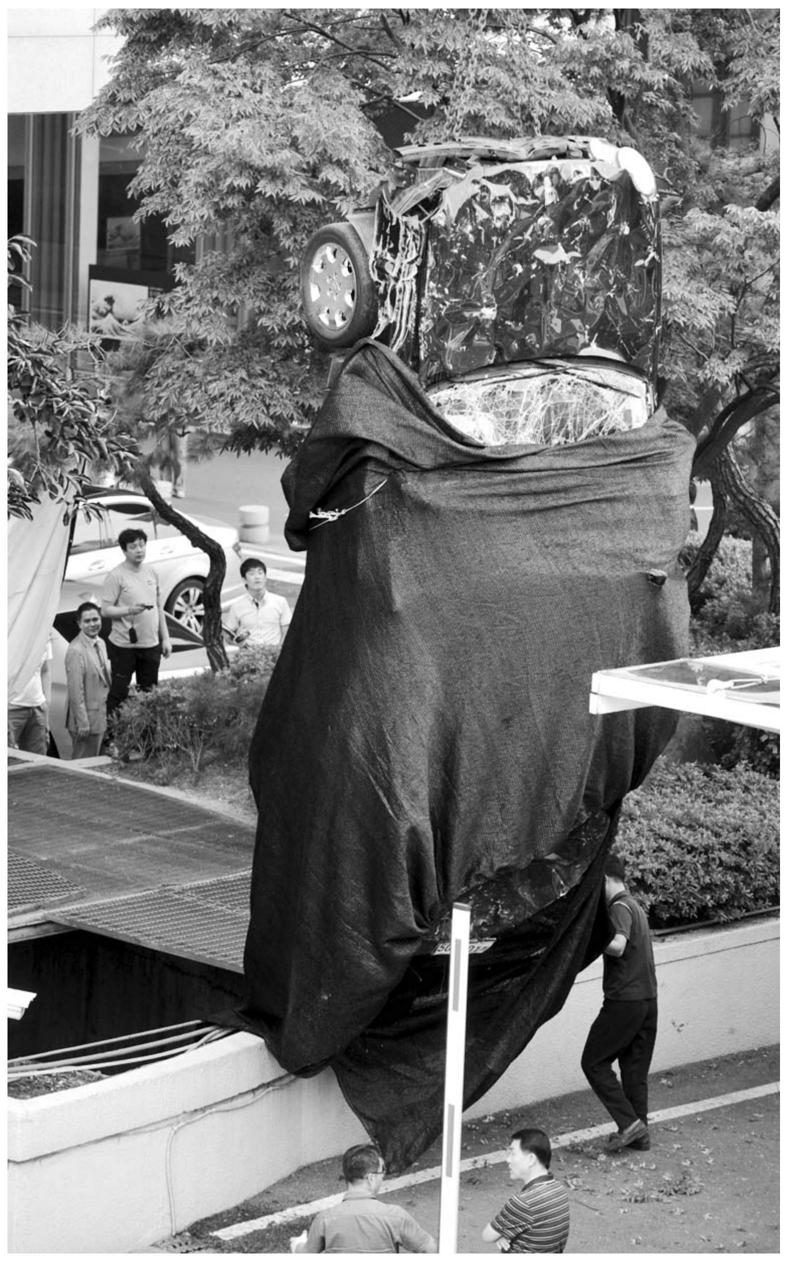
2008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 추락 방지를 위해 두께 20㎝ 이상, 높이 6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사고가 난 곳 들은 법 개정 전에 지어졌거나 건축물 용도가 달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객 이용이 많은 유통시설은 개정 주차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주차장 건물의 외벽을 현행 법에 따라 보강토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7년 지어진 것으로 현행 개정된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 주차장 건물 취약 부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반적인 외벽 강화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추락 사고와 관련, 급발진이나 차량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광주 동구청도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지난 26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주차장 지하 3층에서 추락한 오피러스 차량이 견인차에 의해 지상으로 올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백화점 주차요원 백모(26)씨가 지하 3층에서 차량이 콘크리트 블럭으로 만들어진 벽을 뚫고 지하 6층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했고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벌초객 승합차-승용차 충돌 2명 사망

호남고속도서… 10명 부상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마친 후 귀가길에 오른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8일 오전 10시 55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나들목 인근에서 문모(55)씨가 몰던 그레이스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오모(37)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황모(여·78)씨 등 2명이 숨지고 승합차(7명), 승용차(3명)에 타고 있던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편도 2차로 상행선 도로에 1㎞ 가량 차량이 늘어서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

친척 사이인 문씨 등 승합차 승객 9명은 고향인 장흥에서 벌초를 마치고 서울, 경기 지역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추석 연휴 귀성 10일·귀경 12일 가장 혼잡

익산청, 교통대책 수립

올해 추석에는 연휴가 시작되는 9월10일과 추석 당일인 12일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올 추석 교통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의 경우 주말이 끼어있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휴가 시작되는 9월10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은 추석 당일인 12일 정오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9월10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국도 공사를 서두르고 일부 구간은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

익산국토청은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1호선 나주 금천~남평, 국도29호선 광주~화순 구간은 차량을 우회시켜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13호선 완도 군외~남창 구간은 추석 전에 조기개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로 했다.

또 올해 초 전주~광양(여수) 고속도로 개통과 지난해 국도1호선 전주 용정~춘포, 국도19호선 무주 안성 우회도로, 국도23호선 나주 세지 우회도로, 국도27호선 곡성 학산~주산리, 국도29호선 화순 이양~능주 구간이 개통돼 한층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석연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전화 080-0482-000으로 신고하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교육청 팀장 혼내 주세요"

고압적 언행·성추행 市교육청에 집단 진정

광주 모 교육지원청의 간부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직무태만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의 여직원 등 5명은 최근 A팀장(6급)이 고압적인 언행과 성추행, 직무태만 등을 일삼고 있다며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연명으로 진정서를 냈다.

공직 사회에서 여직원들이 상사의 성희롱 등을 문제 삼은 경우는 있지만 팀원 전원이 집단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 교육청은 진정서를 제출한 여직원과 A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점과 직무태만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팀장은 이에 대해 "직원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여직원을 껴안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나주 오리농장 불 2천만원 재산피해

28일 새벽 1시 40분께 나주시 동강면 한 오리농장에서 불이 나 오리 300여마리가 죽고 500㎡가량 건물 1동이 타 약 2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지점 등으로 미뤄 천장 전등으로 연결된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 회장 등 구속

검경, 불법집회 엄정 대처

제주 서귀포경찰은 지난 26일 해군기지 건설 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강씨와 마을주민 김모(54)씨는 업무방해, 시민운동가 김모(2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제주지법 김종석 판사는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돼도 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크레인에 올라 앉아있다 내려오는 등의 행위를 위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 회장 등에 대한 체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가 김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불법 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을 지난 25일 전격 경질했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해군 측이 공사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캐터필러를 연결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동균 회장 등 5명이 업무를 방해하자 서귀포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려 했지만 주민 200여명이 강 회장 등이 탄 경찰차를 승용차 등으로 에워싸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7시간가량 대치했다.

조 청장은 특히 서귀포서가 대치 상황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연행자 모두를 이날 안에 석방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대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 4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 1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7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업무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임건우 전 보해 회장 檢, 구속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임 전 회장은 또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66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양제철 부두서 화물선 기관장 익사

진도 앞바다 예인선 침몰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께 광양시 금호동의 광양제철 제품 부두 해상에서 한 화물선 기관장 박모(58)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광양제철의 한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모 선박회사 소속의 박씨가 정박한 2000t 화물선의 간이계단을 오르다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6시 35분께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52t 예인선이 침몰했다.

그러나 예인선에 타고 있던 조모(57)씨 등 선원 3명은 인근을 항해 중이던 낚시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예인선은 이날 이동 중에 조류에 떼밀려 침몰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예인선에 벙커A유 5드럼(1천ℓ)이 실려 있었지만 침몰 전 선원이 연료 주입구를 봉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상 오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도박 자금 때문에…"조카 유인 돈 요구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카를 유인한 후 동생에게 돈을 요구한 A(45)씨를 인질강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에게 "PC방에 가고 싶지 않냐"고 유인해 데리고 나간 뒤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동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카를 데려간 지 2시간만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취를 감췄던 A씨는 지난 24일 오후 강선도 정선군 한 도박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후 "인근 PC방에서 조카를 데리고 있었고 동생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 사회복지직 | 부사관(육군·공군·해군)
개강 9월 1일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